

제3강 좋은문장과 나쁜문장 I

(1교시)

▲ 좋은 문장이란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의 기호에 의해 좌우됨

→ 좋은 문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

그러나 고전 작품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장력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문장과 그렇지 못한 문장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문장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얼마나 오롯이 담아내고 있느냐로 그 가치가 결정됨

① 내용과 어울리는 형식으로 존재해야 한다.

② 누구나 그 뜻을 알 수 있는 쉬운 문장

③ 간곡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장,

④ 감정이 절제되어 있는 문장,

⑤ 행간마다 절규가 느껴지는 문장

▲ 좋은 문장의 기본조건

가. 진솔하게 표현하라.

진솔하게 표현한다는 건 태도의 문제이다.

더러운 건 더러운 것 대로, 추한 건 추한 것 대로 의미가 있다.

더러운 걸 더럽지 않다고 우기는 것은 잘못된 것.

나. 자신도 모르는 말을 쓰지 마라.

멋진 문장, 아름다운 문장만을 쓰려고 하면, 시 한 편 혹은 소설 한 편의 맥락을 무시하고 문장 자체에 함몰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됨. 그러면 작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담은 문장을 남발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

꼭 필요한 문장만을 쓰는 것. 소설이 요구하는 문장도 바로 그런 것.

다. 자신만의 특성을 드러내라.

편식하지 않고 많은 작가와 작품을 소화하는 것이 기본

라. 밑바닥까지 보여줘라.

글쓰기는 하나의 과정이다.

자신의 가슴 밑바닥에 자리잡은 이야기를 한 톨도 남김없이 내뿜고 나면, 어떤 사건을 감춰야 할지, 이야기의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어떤 대목에서는 빨리 말하고 어떤 대목에서는 느리게 말해야 할 지를 알게 된다.

즉 남김없이 보여준 다음이라야 감출 줄도 알게 됨.

마. 집중하여 관찰하라.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소셜이란, 수많은 정보를 작가 나름의 시각으로 재구성하고 가공하는 것**

세심하게 관찰하면 → 대상에 애정이 생김 → 대상의 본질을 잘 이해하게 됨 → 본질에 근접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된다.

예> 서정주 시인은 ‘국화 옆에서’를 쓰기 위해 사시사철 국화를 관찰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편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전문

바. 다양한 경험을 하라

자신의 경험에 함몰되면 좋은 글을 쓰기 어렵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적경험도 풍부하게 지니게 된다면 이 때부터 자신의 경험은 글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됨.

자신이 몸으로 부딪히며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것들을 자신과 다른 관점에서도 해석해보고 곱씹어보라.

경험이 문장과 곧장 이어지지 않는 것을 몰라도, 기본적인 문장력을 획득하게 되는 날, 그 경험은 언제든 파내어 쓸 수 있는 금광이 된다.

사. 문학에도 의무가 있다

- ① 문학은 사람과 사람이 교감하는 통로이며 우리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어야 한다.
- ② 우리말을 갈고 다듬어 발전시켜야 한다.

아. 동료들과 공유하라

문학의 이중성: 누가 내 글을 대신 써 줄 수 없듯이 문학은 철저히 고립되고 외롭고 쓸쓸한 개인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나 문학은 늘 누군가와 소통을 바란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독자를 원한다는 점에서 또한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영역에 속하기도 한다.

예> 소설가 최인훈은 판본을 달리할 때마다 '광장'의 첫 문단을 고쳤다.

좋은 문장이란, 좋은 소설이란, 술한 오해의 산맥을 넘어가야 이를 수 있다.

나의 동료는 또 다른 나의 독자입니다.

이처럼 동료들과 함께 글을 공유하게 되면, 남의 눈의 티끌은 보고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는 오류를 피해갈 수 있다. 좀 더 자기 문장의 단점을 빨리 파악하고 수정해 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교시)

▲ 글을 쓸 때 범하기 쉬운 문장의 오류

가. 성분의 누락

ㄱ. 주어누락

예>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의 장르로서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

→ ‘누가?’

ㄴ. 목적어 누락

예> 몇 달 전 영화가 나타났다. 우리 동네 사내들은 서울에서 온 계집답지 않게 불임성이 좋아 사랑하게 되었다.

→ ‘누구를?’

우리글은 주어가 생략되어도 어색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목적어가 생략되면 어색해진다.

즉 주어와 목적어가 누락되어도 맥락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문장도 있으나 **주성분이 생략되는 경우 비문이 되거나 독자의 가독성을 해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락하지 않는 게 좋다.

나. 잘못된 호응 관계

ㄱ.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1> 맛도 영양도 훨씬 많다.

→ ‘맛’과 ‘많다’는 어울리지 않음

예2> 내 꿈은 소설가가 되어 황순원의 소나기와 같은 불멸의 작품을 남기려고 한다.

→ 수정> 내 꿈은 소설가가 되어 서정주의 화사와 같은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주어와 서술어가 멀리 떨어져 있어 호응하지 않거나, 혹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적절치 못한 서술어를 쓰기도 한다.

ㄴ.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 자, 이제 마음껏 빵과 포도주를 마시세요!

주어가 두 개 이상, 목적어가 두 개 이상일 때는 각각의 주어,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는지 살펴보는 게 요령이다.

ㄷ. 연결 어미의 사용

예1>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고 앞좌석에 앉아있던 나는 그 반동에 의해 차의 앞 유리를 뚫고 그대로 튕겨나가 버렸다

예2>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예3>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봄이 오고, 청년실업자인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에 웅크리고 있다.

다. 조사 사용

예1> 신인상 공모는 7일까지(→7일에) 마감한다

예2> 살아남은 자는 한 명뿐이(→한 명밖에) 없다.

라. 명사형의 잦은 사용

예1> 불법 건물임이 판명되었다.(→불법 건물로)

예2> 주인 영감이 눈곱만큼 떨어뜨려 주는 소다를 넣으면 처음 크기의 몇 곱절로 부풀어오르는 모양은 가히 마술과도 같은 신기함이었다.(→마술처럼 신기했다)

예3>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 듣기를 즐겨워했다.(→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즐겨 들었다)

예4> 몇 가지 필요조건이 있다.(→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명사형을 사용하는 건 영어식 표현의 영향이다.

문장의 강약, 속도 조절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하자면 -다 로 끝나는 문장이 지겨워 명사형으로 끝내려고 한다거나, 서술을 하게 되면 문장이 늘어지게 되어 일부러 명사형으로 쓴다거나, 이처럼 작가의 의도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명사형의 사용을 피하는 게 쉽고 깔끔한 문장을 쓰는 방법

마. 단어 특성에 따른 호응

예1> 그의 가슴에 남은 앙금은 아직도 가라앉지(→가시지) 않고 있다.

예2> 이제부터 나는 결코 너를 소설가라 부르겠다.

예3> 밤새 책상 앞에 앉아있던 그는 창문 밖이 흰히 밝아오는 걸 보며 기지개를 폈다.

★ 퀴즈

다음 문장들을 고쳐 써 보자.

1. 그는 밤을 꼬박 새워 한 편의 아름다운 소설이 완성되었다.
2. 나는 아름다운 영미의 동생 영자를 사랑한다.
3. 나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너도 사랑한다.

★ 답

1. 그는 밤을 꼬박 새워 한 편의 아름다운 소설을 완성하였다.
2. 나는 아름다운, 영미의 동생 영자를 사랑한다.
3. 나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너만을 사랑한다.